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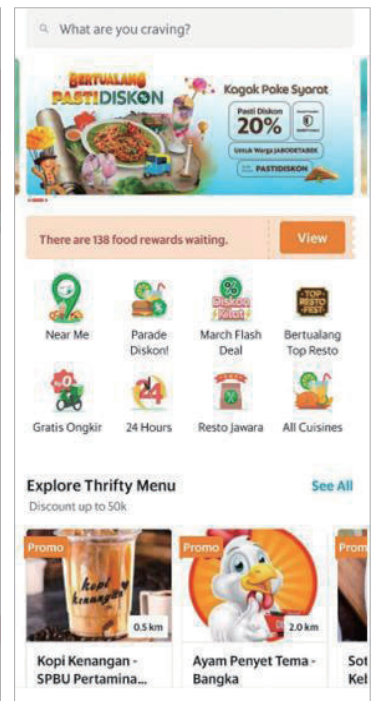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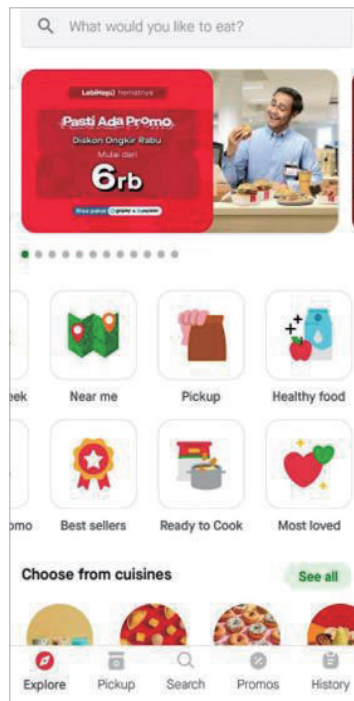
혁신을 맞이한 인도네시아의 식품 배달대행 플랫폼

동남아 최대의 인도네시아 온라인 식품 배달대행 산업

인도네시아는 외식문화의 발달과 저렴한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음식배달 대행 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다. 작년 한 해 인도네시아 음식 배달대행시장의 총 매출은 동남아 최대인 37억 달러를 기록해 2위인 태국(28억 달러) 및 3위의 싱가포르(24억 달러)보다 크게 앞서 있는 상태다.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인
고푸드(God Food)와
그랩푸드(Grab Food)

자료 직접캡처



인도네시아의 음식배달 대행시장은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배차 앱 그랩(Grab)의 음식배달 플랫폼인 그랩푸드(Grab Food)와 인도네시아 배차 앱인 고젝(Gojek)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인 고푸드(Go Food)가 각각 53%와 4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음식배달 대행 산업

CLSA Indonesia의 분석가인 Jonathan Mardjuki에 따르면, CLSA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70%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식사가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일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플랫폼의 옴니채널화

이렇듯 온라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자 기존에는 배달대행만 하던 고젝(Gojek)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 토코페디아(Tokopedia)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합병이 성사될 경우에는 차량공유, 온라인쇼핑, 고객을 대신하여 오프라인마트 장보기, 결제 및 배달까지 아우르는 거대 종합서비스플랫폼이 탄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에 질세라 인도네시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쇼피(Shopee) 또한 최근 쇼피푸드(Shopee Food) 서비스 확장을 통해 온라인 식품배달 대행 산업에 진출했다.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이러한 옴니채널은 PC나 모바일 등 온·오프라인에 걸쳐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① 토코페디아(Tokopedia)

자료 Tokopedia 캡처

② 쇼피(Shopee)

자료 CNBC Indonesia

The screenshot shows the Tokopedia homepage. At the top, there'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Below, a large banner for 'PET FEST Mega Sale Perawatan Hewan' features pet products and a discount of up to 80% from 09:00 to 14:00. Below the banner, there's a 'Kategori Pilihan' (Selected Categories) section with icons for accessories, handphones, wireless routers, and power banks. To the right, a 'Top Up & Tagihan' (Top Up & Bill) section allows users to top up mobile services like Pulsa, Paket Data, and Listrik PLN.

Key Point

코로나19의 영향과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에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 작년 한 해 인도네시아 온라인 식품배달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온라인 쇼핑플랫폼과 배차 및 배달플랫폼의 옴니채널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구매, 결제, 배송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여 맞춤형 한국식품 판매·유통 서비스 개발과 집중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지의 온라인 플랫폼시장을 파악하고 플랫폼별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인기있는 플랫폼 앱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소비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식품을 소비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